

## 마태오 복음서 27장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다**(마르 15,1; 루카 23,1; 요한 18,28)

- 1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sup>1)</sup>
- 2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빌라도 총독은 유다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다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하고 말하였다(요한 18,31 참조). 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로마 총독을 이용한 것이다.

**유다가 자살하다**(사도 1,18-19)

- 3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서른 닢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 4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 일이다.” 하였다.
- 5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유다의 극단적인 선택은 회개의 결과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자살은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 않고, 단지 자기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절망하는 행위일 뿐이다.<sup>2)</sup>

- 6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말하였다.
- 7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웅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

1)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정책에 따라 유다 땅의 역대 총독들은 최고 의회의 폭넓은 권력 행사를 허용하였다. 최고 의회는 곧 식민 통치자들이 설정한 한도 안에서 유다인들의 종교와 정치 생활을 이끌어갔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최고 의회가 사형을 언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복음서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고 의회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는 총독의 승인이 필요하였던 것 같다(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6쪽, 각주 1).

2) 2코린 7,10 :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9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10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발 값으로 내놓았다.”<sup>3)</sup>

복음서 저자의 교회 신자들은 “옹기장이 발”과 “피발”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오는 구약의 여러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일과 또 배신한 값으로 받은 돈의 처리에 관한 예언자들의 예고를 발견한 것이다.<sup>4)</sup>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마르 15,2-5; 루카 23,2-5; 요한 18,28-38)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시오?” 하고 총독이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2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14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sup>5)</sup>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1) 최고 의회는 예수님께서 자칭 임금이라고 주장한다고 빌라도에게 고발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정년 메시아이시며 유대인들의 참 임금이지만,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정치적인 임금이나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임금은 아니심을 드러내신다.<sup>6)</sup>

2)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기 때문에, 당신이 해명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신 것이다, 그래서 침묵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을 의미한다. 그러니 당연히 빌라도는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3) 즈카 11,12-13 :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서른 세켈을 주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의 값어치를 매겨 내놓은 그 잘난 품삯을 금고에 넣어라.” 나는 은 서른 세켈을 집어 주님의 집 금고에 넣었다.

4)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7쪽, 각주 9 참조.

5) 이사 53,7 :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7쪽, 각주 10,11 참조

**사형 선고 받으시다**(마르 15,6-15; 루카 23,13-25; 요한 18,38ㄴ—19,16ㄱ)

- 15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18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고 말하였다.

- 1)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당할 만한 아무 죄가 없음도 알았다. 시기는 미움과 살인을 부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으로 무서운 악이다.  
2)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말한다. 그녀도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알았다.

- 20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21 총독이 그들에게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바라빠요.” 하고 대답하였다.<sup>7)</sup>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하니,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23 빌라도가 다시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यो.”

- 1)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예수님을 정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권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성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판단력을 흐려놓으며 선동하였다.  
2) 빌라도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음에도 정의 앞에서 눈을 감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폭력적인 죽음에 관한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떠넘긴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7) 시도 3,14 :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25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 오.” 하고 대답하였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1)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기원후 70 년경에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2)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고백한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마르 15,16-20; 요한 19,2-3)

27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29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30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31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1) 진홍색 외투는 아마도 군인들의 망토였을 것이나, 진홍색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리고 갈대는 임금의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는 왕 홀을 대신한다.

2) 군인들의 조롱 섞인 행동들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참 임금이심이 우회적으로 드러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마르 15,21-32; 루카 23,26-43; 요한 19,16L-27)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sup>8)</sup>

33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34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sup>9)</sup>

8) 키레네는 북아프리카 해안지방의 그리스 식민지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 있었다.

9) 잠언 31,6-7 : 독주는 죽어 가는 이에게, 술은 상심한 이에게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라.

군사들의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동정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음료를 권하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것이다.

- 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sup>10)</sup>
- 36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 37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비록 죄명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죄인 명패이다,

- 38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sup>11)</sup>
- 39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sup>12)</sup>
- 40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 41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 42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 43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 44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온갖 죄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신다.

**숨을 거두시다**(마르 15,33-41; 루카 23,44-49; 요한 19,28-30)

- 45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십자가에서부터 온 땅 위로 퍼진 “어둠”은 하느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

10) 시편 22, 19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11) 이사 53,12 :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12) 예레 18,16 : 그들이 자기네 땅을 패허로 만드니 그 땅은 영원히 놀림감이 되어 버렸다. 그곳을지 나는 사람마다 너무 놀라서 제 머리를 흔들다.

46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비통의 부르짖음이기는 하지만, 절망의 절규는 아니다. 이 절규는 신뢰의 외침, 현세의 지극한 고통에 상응하여 표현되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외침이다.<sup>14)</sup>

47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48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50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1) 예수님의 신뢰에 찬 기도의 외침을 왜곡하여,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계속하는 것이다.<sup>15)</sup>

2)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하느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명을 완수하신다.

51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55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종들던 이들이다.

56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대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1) 성전 휘장이 찢어짐은 예수님의 속죄 죽음으로 죄인들이 하느님께 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sup>16)</sup>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짐은 예수님 구원사업으로 죽은 이들 곧 성도들이 살아날 것임을 상징한다.

1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0쪽, 각주 36 참조.

14)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0쪽, 각주 37 참조.

15)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0쪽, 각주 38 참조.

1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60쪽, 각주 40 참조.

- 2)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백인대장은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한다.
- 3) 제자들을 비롯한 남자들은 두려워 숨었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다. 여인들은 약하지만, 장차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들이 된다.

**묻히시다**(마르 15,42-47; 루카 23,50-56; 요한 19,38-42)

- 57 저녁때가 되자 아리마태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sup>17)</sup>
- 59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 60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
- 61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요셉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귀하고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다.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무덤을 죽음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봉헌한다.

###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다

- 62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 63 말하였다.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 64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sup>18)</sup>
- 65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66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1)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치 못했다. 그들이 상상한

17) 신명 21,22-23 : “죽을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18) 2베드 2,20 :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얹으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다음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도둑질당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적어도 사흘은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헛되게 만드신다.

2) 무덤을 봉인한 것은, 장차 주님을 부활을 더욱 증명하는 힘이 된다.